

2017. 3. 7.[화] 언론보도



2017년 03월 06일 (월)
사회

2017 'DMZ 자전거투어'...26일 시작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DMZ일대를 달리는 'DMZ 자전거투어'가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DMZ 자전거투어' 코스는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 등을 경유하는 길이 17.2km (초급 14km)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행사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총 5회(3, 4, 5, 9, 10월), 해당 월 넷째 주 일요일에 열린다.

또 참가자에게 다양한 모양의 이색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엽서보내기·DMZ 사진전·초평도 망원경 관람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경기도가 2012년부터 시작한 'BMZ 자전거투어'는 해마다 3,000명 가량이 참가하고 있다.

14.4 X 6.7 cm

국민일보

2017년 03월 07일 (화)
14면 사회

'2017 DMZ 자전거투어' 26일 첫 출발

자전거를 타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2017 DMZ 자전거투어'가 오는 26일 경기도 파주 임진강변투어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로 8년째인 DMZ 자전거투어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 행사로 매년 3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코스는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 등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자연과 안보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4km)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올해 행사는 3, 4, 5, 9, 10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총 5회 진행된다. 자전거투어 참가자에게는 이색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엽서보내기, DMZ 사진전, 초평도 망원경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경기관광포털(ggtour.or.kr)을 통해 매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3월 행사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장비대여 시 대여료 3000원 별도) 생수와 간식, 농산물 교환권(5000원 상당)이 제공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9.8 X 9.7 cm

경기도 26일부터 'DMZ 자전거투어'

경기도는 'DMZ 자전거투어'를 오는 26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DMZ 자전거투어'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코스는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 등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4km)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올해 행사는 총 5회(3·4·5·9·10월) 진행되며 해당 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열린다. 참가비는 만원이다. 참가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을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7.0 X 8.0 cm

DMZ 즐기며 자전거투어
26일 파주 임진강변서 개최

경기도는 26일 파주시 임진강변에서 올해 첫 'DMZ 자전거투어'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DMZ 자전거투어'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DMZ를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행사이다.

행사는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등 남북 분단으로 훼손이 안 된 청

정의 자연경관과 안보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 전체 17.2km(초급 14km) 코스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올해는 3월, 4월, 5월, 9월, 10월 등 모두 5차례 진행된다. 해당 월 넷째 주 일요일에 열린다. 도는 참가자에게 이색자전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엽서보내기·DMZ 사진전·초평도 망원경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을 통해 매일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장비대여료 3,000원은 별도다. 참가자들에게는 생수와 간식, 5,000원 상당의 농산물 교환권이 지급된다.

도는 또 대표적인 DMZ 체험행사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와 연계해 파주·김포·연천에서 '특별 자전거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철새도래지인 파주장단반도를 자전거투어 신규코스로 개발하기로 했다. 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031-956-83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17.6 X 5.8 cm

DMZ 자전거투어 26일 스타트... 올해 5차례 열려

경기도는 26일 파주시 임진강변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리는 'DMZ 자전거투어'를 연다.

코스는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 등을 둘러보는 17.2km(초급 14.0km) 구간에서 펼쳐지며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17일까지 경기관광포털(www.ggtou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 원이다. 단, 자전거 등 장비를 빌릴 때는 3천 원의 대여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5천 원 상당의 생수와 간식, 농산물 교환권도 제공된다. 도는 26일을 시작으로 4·

5·9·10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총 5차례 자전거 투어를 열 방침이다.

엽서보내기·DMZ 사진전·초평도 망원경 관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 방법은 행사가 열리는 달 둘째·셋째 주에 경기관광포털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전거 투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031-956-8306~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이 밖에도 대표적인 DMZ 체험 행사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와 연계한 '특별 자전거투어'를 파주·김포·연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9.9 X 10.9 cm